
언어구분 KOR 논문구분 원저/구연 논문분야 슬관절

논문제목 슬관절의 내측 구획 관절경 수술 시 동반되는 경피적 **pie-crusting** 내측유리술

영문제목 **The Percutaneous Pie-Crusting Medial Release technique in Arthroscopic procedures for Medial Compartment of the Knee**

발표자 김성환 책임저자 김성환

저자 김성환, 우찬명, 이수건, 김성훈, 정민, 김성재

기관명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정형외과

서론 : 슬관절의 내측구획의 관절경 수술 시 좁은 관절간격은 병변 부위를 보기 힘들게 하거나, 기구의 삽입 및 술식에 장애를 초래하고 또는 불필요한 관절연골의 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. 최근 몇몇 문헌에서 관절경 수술 시 보조적 술식으로 경피적 **pie-crusting** 내측유리술을 제시한 바 있으나 그에 따른 영향은 보고된 바가 없다. 따라서 본 연구는 (1) 관절경적 내측 구획 수술 시 내측유리술의 필요성과 관련된 요인을 찾고 (2) 해리술을 동반하지 않은 군과의 임상적 비교를 통해 해리술로 인한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.

재료 및 방법 : 슬관절의 내측구획의 관절경 수술 시 좁은 관절간격은 병변 부위를 보기 힘들게 하거나, 기구의 삽입 및 술식에 장애를 초래하고 또는 불필요한 관절연골의 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. 최근 몇몇 문헌에서 관절경 수술 시 보조적 술식으로 경피적 **pie-crusting** 내측유리술을 제시한 바 있으나 그에 따른 영향은 보고된 바가 없다. 따라서 본 연구는 (1) 관절경적 내측 구획 수술 시 내측유리술의 필요성과 관련된 요인을 찾고 (2) 해리술을 동반하지 않은 군과의 임상적 비교를 통해 해리술로 인한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.

결과 : 다중회귀분석에서 술 전 외반 스트레스 방사선 검사상 변형측 절대값은 내측 유리술을 시행유무와 관련된 유일한 요인으로 분석되었으며 특히 그 간격이 8 mm 이하일 때 6.05배의 odds ratio를 보였다 (95% confidence interval, 2.334-15.658; $P < .0001$). 1년 추시 상 해리술 시행 군내에서 술전과 비교하여 외반 스트레스 검사상 건측 대비 외반이완정도 (SSD) 및 절대값 (ABV) 모두 의미 있는 이완의 증가는 관찰되지 않았다 (술 전 SSD, -0.1 ± 1.4 mm; 술 후 SSD, -0.1 ± 1.3 mm; $P = .619$, 술 전 ABV, 8.0 ± 1.8 mm; 술 후 ABV, 7.5 ± 2.4 mm; $P = .991$). 또한 그룹R 과 그룹N간의 해리술 동반 유무와 관련하여 두 군간의 1년 추시 상 Lyshlom 점수, IKDC 주관점 점수 및 객관적 등급에 의미 있는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.

결론 : 슬관절의 내측 구획에 대한 관절경적 수술 시, 경피적 **pie-crusting** 내측유리술은 내측 간격 협소시 비교적 안전하게 시행될 수 있는 부가적 시술로 제시될 수 있겠다. 특히 술 전 외반 스트레스 방사선검사상 측정된 8 mm 이하의 이완은 상기 술식의 동반 필요성과 의미 있는 연관관계를 보인다.

acknowledgment :

경피적, 내측유리술, 관절경, 내측구획, pie-crusting
